

사회자본 패러다임과 사회·감성재화에 관한 소고

박 성 쾌†

(†부경대학교)

A Thought on Social Capital Paradigm and Social-Emotional Goods

Seong-Kwae Park

Pukyong National University

(Received August 24, 2004 / Accepted November 17 2004)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a social capital paradigm which can be applied to many forms of social capital and intangible goods. The social capital paradigm introduces a new form of capital. This new form of capital produces a flow of socio-emotional goods that have value. Moreover, these socio-emotional goods can attach themselves to the objects used to convey them and change their value and meaning. This change in value and meaning is defined as attachment values. Exchanges of socio-emotional goods occur in networks where social capital resides.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provide order and meaning to exchanges of tangible and intangible goods. Social capital is a powerful resource that makes our choices interdependent.

The social capital paradigm does not alter or contradict the basic economic theories of exchange. While the social capital paradigm accepts that selfish preferences motive many actions, it adds that sympathy and the desire to consume socio-emotional goods are powerful motivators. In case of marine affairs, ocean and fishing villages and their culture have been not only a fundamental basis of fisheries development but they also have made a great deal of contribution to forming social capital. In spite of this fact, the main reason that the problems of fisheries·fishing villages·fishermen in our society are kept at a distance is because they have been losing their capability of forming social capital and producing socio-emotional goods, in addition to lowered relative economic share.

Key Words: *social capital, paradigm, socio-emotional goods, formal /informal institutions, tangible/intangible goods, power, networks.*

I. 서론

최근 우리 사회¹⁾에서 지능지수(IQ)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감성지수(EQ)라는 개념이 다양하게 조 명되고 있다. EQ의 개념은 1990년 예일대학 P.

1) 사회(社會)는 (i) 같은 무리끼리 모여서 이루는 집 단, (ii) 공동생활을 하는 인류의 집단, (iii) 세상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사회는 반드시 사람과 사람, 조직과 조직 사이에 관계와 네트워크를 수반한다.

† Corresponding author : 051-620-6511, skpark@pknu.ac.kr

Salovey 교수와 뉴햄프셔대학의 J. Mayer 교수의 공동연구논문이 발표되면서 처음 소개되었는데, 기존의 IQ만으로 측정할 수 없는 인간의 정서적 능력수준을 나타내는 개념이다(D. Goleman 1995에서 재인용). D. Goleman은 감성능력(감성지수)를 자신의 감정 상태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능력,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사물을 낙관적으로 파악하고 자기동기화할 수 있는 능력, 사회적 기술로서 인간관계 능력, 타인과의 감정이입 능력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감성(感性 emotion)²⁾이란 무엇인가? 옥스퍼드 영어사전(Oxford English Dictionary)은 『감성(emotion)을 마음의 움직임 또는 격렬하거나 흥분된 마음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모두가 동의하지는 않지만, 이론학자들은 기본적인 감성을 화(anger), 슬픔(sadness), 두려움(fear), 즐거움(enjoyment), 사랑(love), 놀라움(surprise), 역겨움(disgust), 수치(shame) 등 여덟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Goleman 1995). 이런 기본적인 감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부정적인 현상에 반응하여 보다 나은 정서(情緒)를 낳는 동력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인간행위 중 많은 부분은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의 증대를 위한 이기적 선호에 의해 유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이타적 선호행위에는 자선단체 기부, 친구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자기희생, 단지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이 속해있는 조직이나 사회를 떠나게 되고 싶지 않은 마음, 친구와 물질적

재화나 서비스를 거래할 때 상대적으로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행위, 선물하는 것, 자발적 행위, 어떤 사물에 상대적으로 큰 비물질적 가치를 부여하는 것 등이 있다. 사회자본 패러다임(social capital paradigm)은 경제학(특히 자본), 심리학(필요에 대한 위계), 사회학(제도와 힘 또는 권력), 교육학(교양, 윤리, 성품), 종교학(사랑, 자비) 분야의 행태개념과 가정을 통합·채택함으로써 인간의 비물질적 행위나 활동을 해명하고자 하는 일종의 과학적 방법론이다(Robison and Flora, 2003).

패러다임(paradigm)이란 변수의 정의와 식별과 기술 그리고 예상되는 인과관계를 포함하는 주제에 관하여 설명하고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자본 패러다임은 인간관계가 사회적, 감성적, 경제적 교환 또는 거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설명하고자 하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Robison-Siles-Schmid(2002)는 사회자본, 사회적 감성재화, 가치부여, 네트워크, 제도, 힘을 포함하는 사회자본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Robison-Siles-Schmid의 사회자본 패러다임 하에서 물질적 재화 및 서비스와 사회-감성재화의 거래에 있어서 사회자본의 역할과 기능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산해양분야에 대한 의미를 발견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수행되었다.

II. 사회자본 패러다임의 이론적 분석들

1. 사회자본

일반적으로 『자본은 다른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상품 자체로 정의된다. 그것은 미래의 생산증대를 위해 만들어진 공장이나 장비와 같은 인위적 생산요소다(Smithson, 1982)』. 자본에 대한 이런 전통적인 경제학적 개념은 인간 자본, 자연자본, 문화자본, 재정자본, 사회자본 등으로 확대되어왔는데, 이 중에서 사회자본이 본

2) 감성(感性 emotion)이란 일시적이고 급격한 감정의 움직임 또는 정동(情動)이라고도 한다. 기쁨·노여움·슬픔·놀람·공포와 같은 격심한 마음의 움직임을 가리킨다. 정동을 나타내는 영어 이모션(emotion)의 어원은 라틴어로 <동요시키다> <휘젓다>라는 의미로 정서가 지니는 동적(動的)인 성질을 말한다. 한편, 감정(感情 feeling)은 사물에 느껴 일어나는 심정(心情)으로 정의되며, 의식의 주관적 측면을 말한다. 더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단순한 것을 간단 감정(簡單感情) 또는 단일감정이라 하고, 이에는 쾌·불쾌가 있다 (<http://kr.encycl.yahoo.com/enc/info.html> : 파스칼 백과사전, 동서문화사).

논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핵심주제이다. 사회자본은 학자들의 전문분야와 그 개념이 적용되는 주제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있다. Bourdieu(1977, 1985), Burt(1992), Coleman(1988, 1990), Narayan and Prichett(1997), Portes(1995), Portes and Sensenbrenner(1993), Woolcock(1998)는 각각 사회자본의 개념을 대안적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사회자본의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든,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가지고 주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용되지 않는다면, 분석적 도구로서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Castle, 1998).

Robison-Siles-Schmid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사회자본의 다양한 정의들은 단지 어느 경우에 이용되며 어떻게 그것이 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개념 자체의 정확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사회자본의 정의는 그 자체의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그들은 사회자본을 『잠재적 편익과 거래관계에 있어서 기대 이상으로 다른 사람이나 그룹에게 선호적 대우를 제공할 수 있는 개인이나 그룹의 동정심』으로 정의한다. 이 정의는 Weber-Roth·Wittich(1978)에 의한 주관적 합리성과 객관적 합리성 사이의 구분과 맥을 같이 한다. 주관적 합리성은 집단적으로 정의된 정성적 목표를 수반하며, 재화의 획득이 사람관계의 중요성과 같은 궁극적 가치에 근거한 경제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정도에 기인된다. 반면, 객관적 합리성은 계산이나 회계와 같은 정량적 특징을 지닌다.

동정심은 『누구와 함께 느끼거나(feel with) 다른 사람의 참살이(well-being)의 변화를 내재화(또는 대리 만족하는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른 사람에 대해 동정심을 갖는다는 것은 사회자본을 공급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은 사회자본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사회자본은 타인에 대한 단순한 자각과 같은 미온적 동정심으로부터 타인의 참살이와 자신의 참살이를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의 완전한 동정심에 이르기까지 다

양할 수 있다. D. Sally(2000, 2002)에 따르면, 사회자본이 사회적 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거나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것이라면, 동정심(sympathy)은 타인과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사적 프로세스(personal process)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동정심은 사리 추구적 관계, 즉 사리와 이타가 분리되지 않거나(Merleau-Ponty, 1969), 융합되거나(Davis et al., 1996), 겹치는(Aron, Aron, and Smollan, 1992) 관계를 의미한다. Cooley(1902)는 사람에게 동정심이 없을 경우,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사람은 자신이 타인들에게 어떻게 보이는가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타인들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생각한 후에 그 감지된 판단에 따라 반응하고 어떤 주장을 한다. 만일 우리가 타인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타인이 우리의 생각 속에 살아있으며 이미 우리들 자신의 일부가 되어있음을 의미한다.

Edgeworth(1881)는 그의 시장교환모형에서 감성을 고려한 효용함수를 상정하였다. 그는 경제주체들은 그들 자신의 효용과 감성계수(emotional coefficient)에 의해 가중된 타인의 효용의 합을 극대화하는 모형을 제안하였다(Collard에 인용). 그 감성계수는 확대된 자신과 타인의 효용 사이에 겹치는 효용의 정도를 나타낸다. Smith(1759)는 동정심(일종의 감성)을 자신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을 선호해서 입장을 바꾸는 데서 생겨나는 열정, 즉 동료의식(fellow-feeling)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동료들 사이에 강한 유대감이 약아지면, 동정심도 없어지게 되고 그저 면식이 있는 사람들보다 친구에게 더욱 즉각적으로 동정심이 유발되는 경향이 있다.

2. 사회-감성재화

사회자본은 사회-감성재화(social-emotional goods)를 생산하는 능력을 지니는 반면, 다른 형태의 자본은 주로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과 연관

성을 가진다. 사회-감성재화는 보살핌을 표현하고 입증하거나, 자각과 자애심을 증가시키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들 사이에 표출된 정서이다. 사회-감성재화는 인간의 필요(needs)를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들은 상호교환에 있어서 가치를 지니고, 때때로 물질적 재화 및 서비스와도 거래된다. 따라서 사회-감성재화는 사회자본 투자와 증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사회-감성재화의 니즈에 관하여, Rogers(1961)는 인간의 기본적 니즈는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며, 그 니즈는 생리적 니즈보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더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주목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은 가치있는 보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거나 열등감, 나약함, 무가치, 죄악,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경험을 회피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Maslow, 1962). 사회-감성재화는 자원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선택의 대상이다. 환언하면, 감성(사회-감성재화)은 선택에 전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감성적 보상과 다른 보상 사이에 상쇄현상이 발생하기도 한다(Elster, 1998). 오히려 그런 상쇄현상은 선택이 다른 보상에 반하여 상쇄되는 보상 중 어느 하나에 의해 수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찍이 경제학자들은 사회-감성재화나 Becker(1974)가 말하는 소위 사회적 소득(social income)의 중요성을 인정하였다. 감성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고려할 때, 유명해지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는 인간의 내면에 항시적으로 존재하며, 모든 사람의 열정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하는 감정이다(Marshall, 1962).

우리는 거의 모든 거래에 있어서 사회-감성재화도 함께 교환한다. 따라서 사회자본에 관한 연구는 사람간의 거래가 중요시 되는 모든 학문분야에 적용된다.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은 거래와 거래대상에 가치를 더하거나 감하는 사회-감성재화의 교환을 필연적으로 수반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은 특히 경제학에 있어서 그 타당성을 지닌다.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에 포함되는 사회-감성재화의 가치는 교환되는 재화의 조건과 수준을 변화시키고 흔히 거래의 성사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물질적 재화의 교환에 수반되는 비경제 재화는 거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전통적 경제학은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경제학의 특수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³⁾ 많은 비시장거래에 있어서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는 사회-감성재화와 함께 거래된다. 예컨대, 사회-감성재화가 물질적 재화 및 서비스와 교환되는 비경제거래를 생각해보자. 지역 사회의 자원봉사자들이 꽃을 심거나 냇강과 해변을 청소하면, 그 노력의 대가로 지역사회 사람들로 부터 선행에 대한 인정을 받는다. 또한 병원 자원봉사자들이 환자들을 돌보면, 그 대가로 환자로 부터 사회-감성재화를 받게 된다. 환자들 역시 대리만족을 통해 사회-감성재화를 받는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선운동을 조직하여 활동하면, 동료들로부터 사회적 인정을 받는다. 금전적 편익은 아닐지라도, 그 때의 보상은 사회적 인정(社會的 認定)이라는 사회-감성재화인 것이다.

3. 부착가치

사람과 사물은 거래에 있어서 사회-감성재화를 동시에 전달한다. 사회-감성재화를 전달하는 사람은 사회자본을 획득하며, 사회-감성재화를 전달하는 사물에는 경관, 등대, 항구, 애완동물, 사진, 장소, 약속, 선호적 대우, 선물, 편지, 깃발, 전통 등이 있다. 사회-감성재화는 그들을 전달하는 사물과 연관되어 있거나 그 사물에 부착되어 있다. 사회-감성재화가 사물에 부착되어 있을 경우, 그들의 가치와 의미가 변화할 수 있다. 부착가치(attachment values)란 사물에 부착된 사회-감성

3) 물질적 이윤 또는 상징적(감성적) 이윤 극대화 문제에 관한 경제이론으로서 보편적 경제학은 사육이 없거나 호의적인 거래를 포함한 모든 거래를 다룰 수 있는 경제학을 말한다(Bourdieu, 1977)

재화로 인해 사물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달라지는 것을 말한다. 부작가치는 Kahneman-Knetsch-Thaler(1990)가 말하는 소위 고유효과(endowment effect)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해변의 아름다운 경관, 돌고래, 보석, 만년필 등과 같은 것에 일단 소유권이 설정되면 사적 가치가 증가한다. 또한 친구로부터 받은 꽃, 존경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은 편지, 전문가의 인정 등은 사람과 사물 사이의 연대감을 통해 고유가치를 창출한다. 학문적 성취와 공직진출 그리고 재산획득에 대한 사회적 공인(公認)도 사회-감성재화를 내재화하고 그들에 대한 부작가치를 창출한다.

문화유물, 풍어를 기원하는 제의식(祭儀式) 등과 같은 신성한 상징(symbols)에 대한 Durkheim (1995)의 개념도 부작가치와 상관관계를 가진다. 신성한 상징은 그것이 신성시되기 위한 집합적 투자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신성한 상징과 부작가치는 구분되고, 부작가치는 개별적 집단적으로 보유된다. 그룹이나 사회가 신성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세대를 거쳐 전수될 수 있고 집단적으로 공유된 믿음과 관례를 통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이 가능하도록 변화될 수 있다. 그러나 신성한 상징과 일치하는 사람들의 행위는 경제적 이윤과 어떤 감성을 극대화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합리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어업인들과 농업인들은 반드시 이윤 극대화를 위해 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히려 그들은 소박하고 개인주의적이고 독립적인 농어촌에서의 삶을 추구할 수 있으며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가능한 한 자유롭고 싶어 한다. 경제학이 내재화된 사회-감성재화를 통한 사물의 부작가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패러다임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이와 같은 패러다임 확대는 많은 학문 사이에 존재하는 경계를 허물고 학문 사이에 보다 큰 협력을 이루어내기 위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4. 네트워크

사회자본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형성

된다. 네트워크(network)는 관계의 패턴(pattern)이나 사회자본이 어디에 존재하는가를 이해하고 설명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 우리는 때때로 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을 수행하려고 할 때 우연히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특정 연구팀의 멤버들은 그들의 목적이 단지 연구 프로젝트 수주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과정에서 하나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다. 사회자본의 이와 같은 우연적 성격이 그 핵심적 특징이다(Coleman 1988, 1990). 사실, 사회자본은 부대효과 이상의 효과를 지닌다. 네트워크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징은 그것의 침투성에 있다. 그룹 멤버들이 지니고 있는 유전형질에 기초한 네트워크는 그들의 후천적 획득형질에 기초한 네트워크보다 침투성이 약한 경향이 있다. 때때로 침투성이 매우 약한 네트워크가 관찰되는데, 그것은 경제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제약요인이 되곤 한다(Olson, 1982). 다른 경우, 후천적 획득형질에 기초한 침투성 네트워크들이 눈에 띄는데, 그것은 시민사회가 발전하는 동인으로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Putnam-Leonardi-Nanetti, 1993).

네트워크는 그룹이 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믿는 사람들과 그룹이 개별선호를 반영한다고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완화 또는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한편으로, 개인들은 사회자본을 공급하고 개인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그것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회자본은 미시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사회자본은 개인들에게 부작가치와 사회-감성재화를 전달하는 중복 네트워크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거시적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또한 네트워크는 기본적으로 한 네트워크 멤버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왜냐하면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는 비용은 곧 그 네트워크의 다른 모든 멤버들로부터의 비난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네트워크는 합의된 규칙과 규범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개인선호와 그룹선호 사이에 균형을 유지하는데 기여한다. 그러

나 네트워크는 혁신과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약할 수도 있다.

네트워크 내에서 다른 사회적 결과를 초래하는 다른 종류의 사회자본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결속(bonding) 및 교차(cross-cutting) 사회자본이 그것이다. 결속 사회자본은 공유적 핵심가치를 가지는 개인들 사이에 끈끈한 다중적 결속을 수반하는 반면, 교차 사회자본은 다양한 경험, 가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연대를 가능케 하는 역할을 한다. 결속 및 교차 사회자본에 대한 Narayan-Pritchett(1997)의 개념은 각각 Granovetter (1995)의 강한 결속 및 약한 결속의 개념과 유사하다. 이 두 종류의 결속은 지역사회의 변화에 각각 달리 영향을 미칠 수 있다(Flora and Flora 2003). Flora · Flora에 따르면, 강한 결속은 지역사회의 공동 목표와 정체성을 조장하기 때문에 민주적 지역사회 개발은 두 가지의 결속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지역사회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약한 결속은 보완적 능력을 가진 다양한 그룹으로 구성된 지역사회 내의 주민 참여를 조장하고, 주민들이 지역사회 밖의 다양한 출처로부터 정보, 지식, 자원을 획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섭외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⁴⁾

5. 제도

제도(institutions)란 질서있고 의미있는 교환이 가능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이다. 그 규칙들은 재산권, 멤버십 획득을 위한 필수조건, 분쟁해결절차, 새로운 제도수립을 위한 절차를 설정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제도는 다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한 네트워크 내 사람들의 집합적 대응의 산물이다. 제도는 흔히 책임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부터 연유된다. 또한 제도는 사회자본의 분배를 반영하고 따라서 미래의 사회자본 형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제도는 공식적일 수도 비공식적일 수도 있다(Stiglitz, 2000). 선행(善行)에 대하여 보상하거나 사회-감성재화(사회자본)의 제공 또는 억제를 통해 비행을 처벌하는 것은 일종의 비공식제도이다. 비공식제도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생일파티와 기타 특별한 축하행사, 어린이와 노인을 돌보는 일, 고통을 서로 위로할 책임 등이 있다. 신성한 상징을 전수하거나 강화하는 제의식(祭儀式)은 이런 비공식제도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비공식 제도는 사회-감성재화의 교환과 높은 부착가치를 지니는 재화의 교환을 조직화하는데 매우 적합하다. 한편, 비공식제도를 통한 교환(거래)을 조직화할 경우, 물질적 척도로 측정될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이 항상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능력있는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장이 친척이라는 이유로 그를 고용할 경우를 들 수 있다. 다른 직원들은 기회주의적인 반면, 사장의 친척이 상대적으로 능력있고 충직하다면 친척의 고용으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이 증가할 수 있다.

공식제도는 일반적으로 조직 이외의 사람들 사이에서도 작동하는 합의된 사회규칙이다. 공식제도는 흔히 성문화되어 있으며, 공개적으로 소통되고, 공식절차에 의해서 합의되거나 변경된다. 공식제도의 유지와 정당성은 부분적으로 사회자본 관계에서 형성된 부착가치에 따라 달라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물질적 또는 경제적 인센티브(incentives)에 의해 공식제도를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 편익을 초과하게 되고, 결국 그 공식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할 수 있다. 현대 경제에 있어서는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과 재화 및 서비스를 거래하는 능력이 필수적이며, 그런 거래가 일어날 때 우리는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공식적인 제도를 필요로 한다(Weber, Roth, and Wittich, 1978).

4) 여기서 대외접촉(reaching out)은 침투 가능한 경계가 존재함을 의미하고,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사회-감성재화를 많이 보유하면 할수록, 다중적 경계를 넘어서 다른 지역사회와 협력/협조할 수 있는 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6. 힘

힘(power)이란 다른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Boulding, 1989). 또한 힘은 사람, 사건, 상황 그리고 스스로를 제어할 수 있고 일을 완수할 수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정의되기도 한다(Cohen, 1994).⁵⁾ 이 정의 자체로만으로도 보면 힘은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도덕적이거나 부도덕적이지도 않다. 중립적이다. 흔히 힘은 잠재적 보상이나 묵시적 승인을 통해서 행사된다. 개인 또는 그룹의 힘은 그들의 통제 하에 있는 경제적 물질적 자원과 연계되어 있다. 인간 자본은 사람에게 체화된 우수한 기술이나 지식을 통해서 힘을 발휘한다. 또한 힘의 사용은 배제라는 협박전략을 포함하기도 한다. 즉, 협박전략으로 사업거절, 소송, 경쟁자의 능력와해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 폭력과 같은 초법적 형태의 제재가 있을 수 있다.

개인이 지니는 사회자본은 다른 형태의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떤 사회자본은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반면, 어떤 사회자본은 사회-감성재화를 생산한다. 각각의 사회자본은 그 나름대로의 장점을 지니고 있다. 어떤 사람이 은행대출을 필요로 할 경우, 은행에 친구가 있다면 대출을 받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룹 수준에서의 힘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이 수준의 분석은 어떻게 불평등과 배제가 일어나는가를 이해하는데 특히 유용하다. Bourdieu(1977)는 어떻게 사회/문화자본(비공식제도에 대한 지식)이 다른 계급이나 그룹에 의한 특정 계급이나 특정 그룹에 대한 사

5) 사람들이 힘에 대해 불평할 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 중 하나에 근거한다: (i) 그들은 힘이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된다고 생각하며 이 방식을 싫어한다. 힘은 때때로 교묘하고 강제적이거나 독재적인 방식으로 이용되어 진다. 즉 무엇을 이루기 위한 힘이 아니라 지배하기 위한 힘이란 뜻이다. 힘은 자주 악용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 비판은 타당하다. (ii) 그들은 힘의 목표를 지지하지 않는다. 만일 바라는 목적이 타락했다거나 착취적이라고 여겨지면, 아무리 적절한 수단을 통해 목적을 달성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을 정당화시키지 못한다(Cohen, 1994).

회적 지배현상을 이해하는데 응용될 수 있는가를 설명하였다. 그는 프랑스의 경직된 사회계층구조를 관찰함으로써 부유층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 사적 상징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부유층 자녀들은 자동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를 알게 되고 그들이 속해있는 계급의 다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쉽게 친해질 수 있다. 비공식제도와 맥을 같이 하는 공유된 행위는 상류계급 자녀들에게 그들이 실제로 처해있는 상황 이상의 힘을 제공한다.

이와 유사한 사례는 다른 종교, 학문, 정부부처 사이에서도 흔히 발생한다. 특정 종교와 학문 그리고 정부부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 특정 그룹 내의 조직원들 사이에 통용되는 용어(예: 전문용어 Jargon)가 있으며, 흔히 이런 전문용어는 다른 조직이나 그룹에 소외감을 주며, 독단을 만들어 내곤 한다. 따라서 우리 주위에서 흔히 사용되는 역지사지(易地思之)할 수 있는 마음, 즉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마음은 매우 중요한 사회자본 또는 사회-감성재화로서의 개인과 개인, 조직과 조직, 종교와 종교 사이에 경계를 허물고, 사회적 공동유대를 강화/확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힘이다.

7. 사회자본 패러다임 연결고리

사회자본 패러다임은 여러 사회과학 사이의 연결고리(nexus)를 제공한다. 사회자본 패러다임 하에서는 사회구성원들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효용 극대화 행위가 상정된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개인의 효용 극대화 행위가 다른 사람들의 후생과 독립적으로 추구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자본 패러다임은 그룹과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사회자본이 어떻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를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사회자본이론은 개인에 대한 미시적 관점과 그룹에 대한 거시적 관점이 혼합된 관점을 취한다. 사회자

본이론은 또한 전통적 형태의 자본에 의해 창출된 실제적 재화 및 서비스의 거래에 대한 관점과 사회자본에 의해 창출되는 비실체적 재화(사회-감성재화)의 거래에 대한 관점을 결합한 것이다.

사회-감성재화 또는 거의 모든 사회과학에서 사용되는 유사한 개념들의 중요성은 사회과학 분야에 있어서 협력과 의사소통 증진에 필요한 인센티브(incentives)를 제공한다. 예컨대, 교육학자와 심리학자는 사회-감성재화를 강조하는 반면, 사회학자와 인류학자들은 사회적 상징(symbols)에 관심을 가진다. 경제학자들은 자본 패러다임 발전에 기여하며, 인류학자들은 부착가치를 강조하고, 사회학자는 장소에 대한 애착문제를 강조한다. 정치학자, 법학자, 사회학자, 경제학자는 제도와 힘(권력)의 문제를 주목한다. 마지막으로 네트워크가 개인에게 미치는 문제는 흔히 사회학자와 심리학자의 특별한 관심대상이 되곤 한다.

금세기 들어 기계론적 패러다임(또는 뉴턴적 패러다임)에서 생태적(또는 유기적)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은 다양한 과학 분야에서 여러 가지 형태와 속도로 진전되어 왔다. 사실 그것은 완만한 변화가 아니었다. 여기서 기본적인 학문분야 사이에 긴장이 발생하는데 그것은 부분과 전체 사이의 긴장이다. 부분에 대한 강조는 기계론적, 환원주의적 또는 원자론적 관점으로 지칭되고, 전체에 대한 강조는 전체론적, 유기적 또는 생태적 관점이라고 불린다. 현대 과학에서 전체론적 관점은 학문분야간 연결고리가 전제된 소위 시스템적 관점과 시스템적 사고를 함축하는 사고방식으로 알려져 있다(Capra, 1996). 여기서 학문분야간 연결고리는 다분히 사회자본의 축적과 사회-감성재화의 생산을 통해 강화확대할 수 있다.

8. 측정 문제

경제학의 주된 관심대상은 희소한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의 배분문제이다. 우리는 사회-감성재화의 거래보다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상대적으로 더 쉽게 현실적으로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형태의 자본을 비교할 경우에는 중요한 측정문제가 발생한다. 예컨대, 우리는 어떻게 『트랙터』의 생산능력과 『아름다운 마음』의 생산능력을 측정하고 그들을 비교할 것인가?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는 공통된 측정단위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가 다른 형태의 자본을 상호 비교하고자 할 때,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자본의 능력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게 된다. 이 간접적인 측정치는 우리가 그 자본의 서비스를 매매할 수 있는 화폐가치이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콤바인(combine)의 연간 서비스 가치를 측정할 때, 그에 상응한 가치로서 성공적인 회사 임원의 연봉을 고려하기도 하고, 각 자본의 생산성이 유사하다고 가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비교를 할 경우, 간접 측정치를 당해 서비스를 생산하는 실제자본의 측정치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가 다른 형태의 자본을 비교할 때 화폐단위를 사용하거나 화폐와 교환되는 자본의 서비스 가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런 간접측정법은 사회자본의 영향을 측정하는데도 사용된다. 만일 사회자본과 사회-감성재화가 거래를 수반하는 물질적 재화의 가치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회자본이 미치는 영향의 측정치로서 가격의 변화량을 사용한다. 이 경우, 우리가 측정한 것이 결코 실질 사회자본이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형태의 자본능력을 측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사회자본을 간접적으로 측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⁶⁾

만일 어떤 특정 어업인이 자신의 중고어선을

6) 흔히 특정 경관이나 습지(wetland)가 지니는 가치를 평가할 때 조건부 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CV)를 이용하는데, CV는 비실체적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측정하는 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간접 가치측정법 중 하나이다. CV는 사람들이 재화, 서비스, 경관 등에 부착하는 화폐가치를 그들에게 직접 질문하는 소위 설문조사방법(survey method)을 이용한다.

친구, 또는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 또는 아주 낮은 사람 또는 이웃사람에게 판매한다고 가정해보자. 그가 수용하는 가격은 이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동일하겠는가? 조사결과에 의하면 그와 같은 거래에서 수용된 가격은 사고파는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Robison, Myers, and Siles, 2002). 가격이 사고파는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중요한 이유는 사회자본에 대한 투자 또는 거래에 있어서 발생하는 사회-감성재화의 교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III. 요약 및 함의

사회자본 패러다임은 비실체적 자본(intangible capitals)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자본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형태의 자본은 가치를 지니는 사회-감성재화의 유량(flow)을 생산하는 자본이다. 더욱이 사회-감성재화는 그것들을 전달하고 그들의 가치와 의미를 변화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사물에 부착된다. 사회-감성재화는 가치와 의미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부착가치로 정의된다. 사회-감성재화의 교환(거래)은 사회자본이 존재하는 네트워크에서 일어난다. 공식·비공식 제도는 실체적 비실체적 재화의 거래에 질서와 의미를 부여한다. 사회자본은 우리의 선택을 상호의존적으로 만들어주는 매우 유효한 자원이다.

사회자본 패러다임은 기본적인 교환경제이론을 근본적으로 변경시키거나 그것과 상충되지 않는다. 사회자본 패러다임은 이기적 선호가 어떻게 다양한 인간행위를 유발하는가를 설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감성재화를 소비하고자하는 동정심과 욕구가 어떻게 강력한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인가도 아울러 설명할 수 있다. Durkheim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은 Bourdieu는 일반경제학에 있어서 경제적 측면과 상징적 감성적 측면을 통합한 효용함수를 제안하였다. 요컨대, 물질적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를 포함하는 거의 모든 사

적 공적 거래에 있어서, 사회자본 패러다임 자체는 『사회-감성재화의 교환(거래)과 사회적 공동선의 추구가 수반되는 사람-조직의 행위와 의사결정은 근본적으로 연관학문분야의 사람들 사이에, 서로 다른 사회조직에 속해 있는 사람들 사이에 상호이해와 협력의 증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하며, 물질적 재화 및 서비스와 사회-감성재화 사이에는 상보적 관계(complementary relationships)가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수산해양산업의 기반인 해양과 어촌 그리고 어업·어촌문화는 우리 사회에 사회자본을 형성해주고 그것을 통해 다양하고 풍부한 사회-감성재화를 생산·공급하는 원천이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언급한 상보적 관점에서 볼 때, 오늘날 어업·어촌·어업인 문제가 우리 사회로부터 점점 소외되는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상대적 경제비중 저하라는 이유 외에도 바다·수산해양산업·어촌이 거시적 미시적 사회자본 형성능력과 사회-감성재화 생산능력을 점점 상실해 가는 데에 기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문헌

- Aron, A.E., N. Aron and D. Smollan. "Inclusion of the Other in the Self-Scale and the Structure of Interpersonal Clos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pp.241~253, 1992.
- Becker, G.S. "A Theory of Social Interaction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2: pp.1063~1095, 1974.
- Boulding, K.E. *Three Faces of Power*. Newbury Park, CA: Sage Publications, 1989.
- Bourdieu, Pierre.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7.
- _____. "The Forms of Capital." J.G. Richardson, Ed.: pp.241~258. *Handbook*

-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New York: Greenwood Press, 1985.
- Burt, G. Structural Hole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Capra, Fritjof. The Web of Life: A New Scientific Understanding of Living System. New York: Brockman, Inc. 1996.
- Castle, E.N. "A Conceptu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Rural Places." *American Journal of Agricultural Economics* 80: pp.621~631, 1998.
- Cohen, Herb. You Can Negotiate Anything. Kensington Publishing Corp, 1994.
- Coleman, J.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Belknap Press/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 _____.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the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Supplement)*: S95~S119, 1988.
- Collard, D. "Edgeworth's Propositions on Altruism." *Economic Journal* 85: pp.355~360, 1988.
- Cooley, C.H. Human Nature and the Social Order.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02.
- Davis, M.H., L. Conklin, A. Smith, and C. Luce. "Effect of Perspective Taking on the Cognitive Representation of Persons: A Merging of Self and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 pp.713~726, 1996.
- Durkheim, E. Elementary Forms of Religious Life. Translated by Karen Fields. New York: The Free Press, 1995.
- Elster, J. "Emotions and Economic Theory."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6: pp.47~74, 1998.
- Flora, C.B., and J.L. Flora. "Social Capital." David L. Brown and Louis Swanson, eds. *Challenges for Rural American in the 21st Century*. Pennsylvania University Press, 2003.
- Edgeworth, Francis Y. *Mathematical Psych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1881.
- Goleman D. *Emotional Intelligence: Why It Can Matter More Than IQ*. New York: BantamBook, 1995.
- Granovetter, M.S. "The Strength of Weak Ties.":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pp.1360~1380, 1995.
- Homans, G.C. "Fundamental Processes of Social Exchange." In E.P. Hollander and Raymond Hunt, eds. *Current Perspectives in Social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1.
- Kahneman, D., J.L. Knetsch, and R.H. Thaler. "Experimental Tests of the Endowment Effect and the Coase Theorem."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pp.1325~1348, 1990.
- Marshall, A. *Principles of Economics*, 8th ed. London: Macmillan, 1962.
- Maslow, A.H. *Toward a Psychology of Being*. Princeton: D. Van Nostrand Company, 1962.
- Merleau-Ponty, M. "The Primacy of Perception and Its Philosophical Consequences." A.L. Fisher ed. *The Essential Writings*. New York: Harcourt, Brace, 1969.
- Narayan, D., and L. Prichett. "Cents and Sociability: Household Income and Social Capital in Rural Tanzania." *World Bank Research Working Paper No. 1796*.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1997.
- Olson, M. *The Rise and Decline of Nations: Economic Growth, Stagflation, and Social*

- Rigiditi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Portes, A., and J. Sensenbrenner. "Embeddedness and Immigration: Notes on the Social Determinants of Economic Ac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8: pp.1320~1350, 1993.
- Portes A.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A Conceptual Overview." A. Portes, ed.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995.
- Putnam, R.D., R. Leonardi, and R. Nanetti.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3.
- Robison, L.J., M.E. Siles and A.A. Schmid. "Is Social Capital Really Capital?" *Review of Social Economy* 60: pp.1~21, 2002
- Robison, L.J., M.E. Siles and A.A. Schmid. "Social Capital and Poverty Reduction: Toward a Mature Paradigm" *Agricultural Economics Report*, No. 614 and *Social Capital Initiative Research Report* No. 13, June 2002.
- Robison, L.J., R.J. Myers, and M.E. Siles. "Social Capital and the Terms of Trade for Farmland." *Review of Agricultural Economics* 24: pp.44~58, 2002.
- Rogers, C.R. *On Becoming A Person*. Boston: Houghton-Mifflin Co, 1961.
- Sally, D. "Two Economic Applications of Sympathy." *Journal of Law, Economics, and Organization* 18: pp.455~87, 2002.
- Sally, D. "A General Theory of Sympathy, Mind Reading, and Social Interaction, with an Application to the Prisoner's Dilemma." *Social Science Information* 39: pp.567~634, 2000.
- Smith, A. *The Theory of Moral Sentiments*. Kinud Haakonssen, ed.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 Smithson, C.W. "Capital, A Factor of Production." D. Greewald, ed. *Encyclopedia of Economics*. New York: McGraw-Hill, 1982.
- Stiglitz, J.E. "Formal and Informal Institutions." P. Dasgupta and I. Sevageldin, 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2000.
- Weber, M., Guenther Roth and Claus Wittich, eds. *Economy and Society*. Vol 1.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8.
- Woolcock, M. "Social Capital and Economic Development: Towards A Theoretical Synthesis and Policy Framework." *Theory and Society* 27: pp.151~208, 1998